

PA-68

제주지역 가을 메밀 파종 한계기이성문^{1*}, 고승찬¹, 오민아¹, 이광주¹, 송인관¹, 전은미¹¹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서론]**

제주지역의 메밀은 재배면적 2021년 1,426 ha (전국 2,148 ha)으로 전국의 66.4%를 차지한다. 제주지역에서 가을 메밀 재배 시 8월 중순부터 파종을 시작하나,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농가에서는 파종기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가을 메밀 파종 한계기는 서리 발생 10~12주 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초상일이 늦고, 고도별로 차이가 커 실정에 맞지 않다. 따라서, 타가수정 작물인 일반메밀 가을 재배 파종한계기를 수분 곤충 최저활동온도인 15 °C로 설정하여 농가에게 가을 메밀 파종 한계기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양절’메밀 품종을 대상으로 2021~2022년 2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파종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농가포장에서 실시하였으며, 2021년 해발고도가 283 m인 포장에서 8월 19일, 8월 30일, 9월 9일, 9월 23일과 2022년 해발고도가 87 m인 포장에서 8월 16일, 8월 26일, 9월 1일, 9월 10일에 휴폭 20 cm로 세조파하였다. 기상 자료는 포장 인근에 설치된 AWS(Automatic Weather Station)와 기상청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생육 및 수량 조사는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RDA, 2012)에 준하였다.

[결과 및 고찰]

2021년의 경우 태풍 내습으로 8월 19일과 8월 30일 파종구가 피해를 받았으나, 수량은 8월 30일 파종구가 89.3 kg/10a로 가장 높았으며, 8월 19일, 9월 9일, 9월 23일 순으로 수량이 높았다. 2022년의 경우 태풍 내습으로 8월 16일, 8월 26일, 그리고 9월 1일 파종구가 피해를 받았고, 수량은 9월 1일 파종구가 139.9 kg/10a로 가장 높았으며, 9월 10일, 8월 16일, 8월 26일 순으로 높았다. 이는 태풍 피해 여부보다는 수분곤충의 활동으로 기인한 수정률 정도가 수량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분곤충 최저활동온도인 평균온도 15 °C를 고려하였을 때 메밀 안정생산을 위한 제주지역 가을 메밀 파종 한계기는 고지대(250 m 이상)일 경우 8월 하순, 해발고도가 100 m 이하의 경우 9월 상순으로 판단되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사업(과제번호: PJ016174)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lismu@korea.kr Tel. +82-64-760-7433